

# “황윤호표 수비로 내야 공백 메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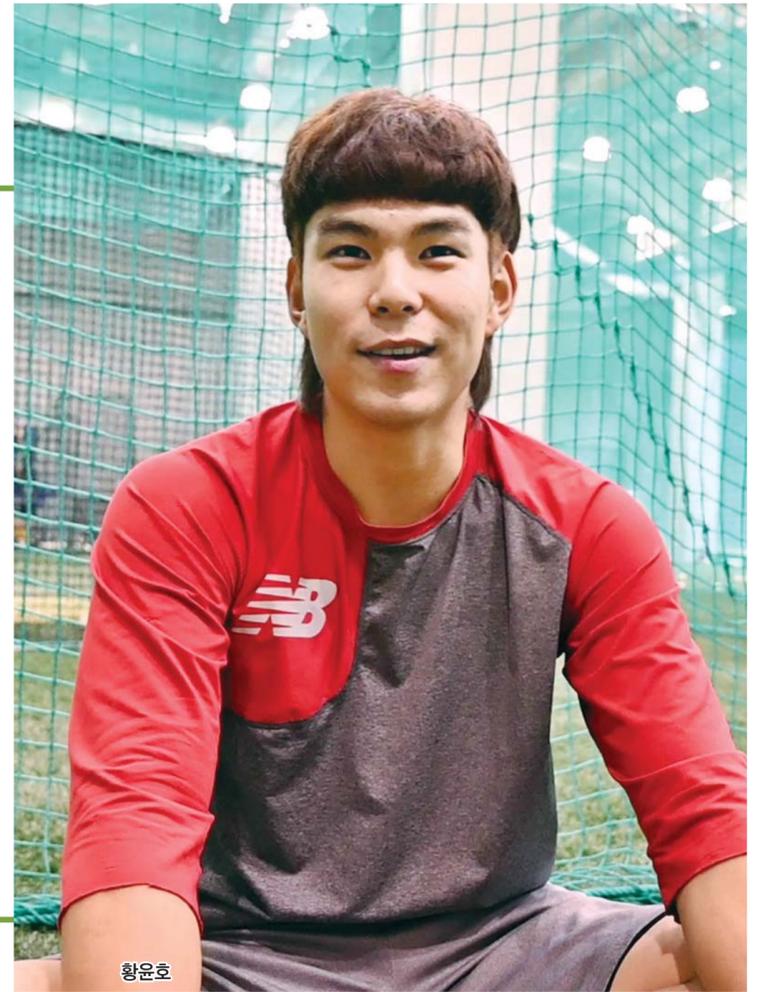
“해내야 된다.”  
 내야수 황윤호가 KIA 타이거즈 2020시즌의 ‘변수’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겨울 KIA 내야는 예측 불허의 취약지가 됐다. 몇 년 간 풀지 못한 백업 고민 속 이번 FA시장에서 내야 ‘상수’였던 안치홍의 마음을 놓치며 ‘3할 타자’를 잃었다. 또 다른 FA 자원인 김선빈의 계약 상황도 지지부진하다.  
 KIA는 지난 11월 SK 와이번스 방출 대상자였던 나주환을 무상 트레이드로 영입하며 내야 자원을 보강했다. 하지만 내야 고민을 해결할 확실한 카드는 아니다.  
 한때 전전후 내야수로 활약했던 나주환은 지난해에는 내부 경쟁에서 밀리며, 94경기에서 나와 225타수 50안타 타율 0.222, 3홈런 20타점의 성적을 내는데 그쳤다.  
 미래 육성을 이야기하는 팀 기조에도 올해 한국 나이로 37살이 되는 나주환이 주인공은 아니다.  
 KIA가 외국인 감독으로 새 판을 짜겠다고 해서 성적과 흥행을 포기할 수는 없다.  
 빈틈 많은 내야에서 황윤호는 최근 팀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됐다. 안치홍의 이적은 황윤호 개인에게는 ‘기회’이고 팀에는 ‘위기’다.  
 황윤호는 “해내야 된다”며 챔피언스필드에서 부

안치홍 떠난 KIA 내야 ‘예측불허’  
 김선빈 계약 상황도 지지부진  
 황윤호, 대체자원으로 관심 급상승

지난해 후반기 39경기 타율 0.350  
 8월 NC전 4안타로 깊은 인상  
 “타격 자세 다 바꿔…기회 꼭 잡을것”

지런히 2020시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황윤호는 “아무래도 내 수비 위치가 내야수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기도 하고, 해내야 된다”며 “물론 (안)치홍이 형이 KIA에서는 큰 존재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루수지만 치홍이 형은 형만의 매력 이 있고 나는 나만의 매력이 있을 수 있다. 내 스타일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야구 가 더 소중해졌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후반기 강렬했던 활약이 황윤호의 2020시즌 밑거름이 됐다. 타격이 약점으로 꼽혔던 황윤호는 후반기 39경기에서 103타수 36안타 타율 0.350 1홈

런 9타점을 기록하며 이미지 반전에 성공했다.  
 8월 30일 NC원정에서는 사이클링히트에 홈런 하나 부족한 4안타의 활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황윤호는 “많은 게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한 점을 짚자면 타격이었다. 공부도 하고 많이 시도도 해봤지만 잘 안 됐다. 지난 여름에 내년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다 바꿨다”며 “스윙 궤도, 타이밍, 스탠스, 방망이 길이, 방망이 위치 여러가지 많이 바꿨다. 우연히 타이밍이 잘 맞고 나와 맞는 폼이 돼서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감’이 지난 시즌 가장 큰 수확이 됐다.  
 황윤호는 “내 자신을 믿지 못했다. 비록 후반기였지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있다”며 “내 폼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폼으로 계속 훈련하고 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기술적으로 자신감을 많이 찾았다. 시합을 뛰해보면서 느낀 게 체력적인 문제였다. 체력이 있어야 힘을 쓰고 기술이 발휘가 된다. 몸을 잘 만들겠다. 1회부터 9회까지 전부 필요한 선수가 올 해 목표고 그런 선수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위기’의 KIA와 ‘기회’의 황윤호가 어떤 2020시즌을 만들어낼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윤호

## “목표는 원팀…강해진 전남 기대해”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지난 10일 김해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전남드래곤즈 베트남 1차 전훈  
 전남드래곤즈가 베트남에서 ‘승격’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전남은 지난 10일 김해공항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으로 1차 전지훈련을 떠났다. 지난 1일 선수들을 소집해 체력 훈련을 진행한 전남은 팀워크에 초점을 맞춰 전지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많이 생긴만큼 ‘원팀’이 1차 목표가 됐다.  
 앞서 전남은 지난 12월 공개테스트를 통해 ‘새얼굴’ 영입을 시작했다.  
 화성FC 출신의 포워드 김보용(22)과 영남대 출신의 미드필더 안재홍(21)이 공개테스트 1-2호 선수가 됐고, 이어 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인 미드필더 정호진(20·고려대)이 전남 유니폼을 입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전남은 기존 한동훈 코치 외에 최철우, 한동진, 김성현, 강진규 코치를 추가로 영입해 ‘전경준호’ 구성을 완료했다.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 삼성에서 각각 하승운(22·FW)과 최정훈(21·MF)을 임대영입하며 ‘젊은 피’를 수혈한 전남은 ‘루키’도 발표했다.  
 전남 유스 출신의 김효찬(MF·22), 경주한수원에서 뛰었던 박찬용(DF·24), 호남대 프리킥 전담 킥러로 활약한 오현교(DF·21), 경희고 졸업후 프로로 직행한 장성욱(DF·19)이 전남에서 프로 데뷔를 준비하게 됐다.  
 우선지명을 통해 아주대 김병엽(21·GK), 호원대 신지훈(GK·22), 광양제철고 남윤재(19·DF)와 계약도 마무리했다.  
 9일에는 ‘광양루니’ 이종호(28)의 고향 복귀 소식도 전해지면서 전남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전남은 이어 브라질 출신의 외국인 선수 호도우프(23)를 임대 영입해 공격에 힘을 실었다.  
 또 한잔희를 FC서울로 보내고 서울 유스 출신인 황기욱(MF·24)과 신성재(MF·23)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고, 베테랑 미드필더 임정균(30)을 불러들여 허리를 강화했다.

새 얼굴을 대거 영입한 만큼 전남은 ‘원팀’을 강조하면서 2020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서게 됐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베트남 전지훈련 기간에도 높은 체력훈련과 전술훈련으로 선수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전술능력 극대화과 조직력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경준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은 승격을 하기 위해 원팀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진행된다. 코칭스태프를 비롯해 선수들 모두가 올해 목표로 하는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돌아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K리그2 도우움을 차지한 정재희 선수도 “새롭게 합류한 선수도 많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같이 땀 흘리며 친해져서 좋은 팀으로 거듭나서 돌아오겠다. 새로운 시즌 좋은 모습 보여드릴테니 걱정보다는 기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에서 ‘원팀’에 주력하는 전남은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남해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육석 가리기를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



이용대(왼쪽)·김기정(오른쪽)이 12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말레이시아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대 ‘부활 선언’

배드민턴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김기정과 복식 금

## 손흥민, 리버풀전도 침묵

징계 후 첫 리그 복귀전…풀타임 출전에도 공격 포인트 ‘0’

손흥민(28·토트넘)이 정규리그 첫 복귀전을 공격포인트 없는 아쉬운 경기로 마쳤다.  
 손흥민은 12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풀타임 출전했다. 토트넘은 ‘리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리버풀에 0-1로 무릎을 꿇었다.  
 손흥민에게 이날은 지난달 23일 첼시전에서 상대 선수를 발로 가격해 받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끝나고 치르는 정규리그 복귀전이었다.

손흥민은 4-4-2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해 공격적으로 골문을 노렸다.  
 전반 7분 손흥민은 센터라인 근처에서 상대 수비수 조던의 볼을 가로챘 뒤 페널티 지역 앞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다.  
 후반 15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도 골대 오른쪽으로 흘러나가고 말았다.  
 후반 29분 같은 위치에서 모우라의 패스를 받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나, 슈팅이 골대 위로 벗어

나며 아쉬움을 자아냈다.  
 손흥민은 휘슬이 울리기 직전인 후반 추가시간 3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감아 차는 언발 슈트를 시도했으나 이번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결국 토트넘은 전반 37분 호베르투 피르미누의 선제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패배를 받아들였다.  
 정규리그에서 2연패를 추가한 토트넘은 리그 8위(8승 6무 8패 승점 30)로 주저앉았다.  
 반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20승 1무 승점 61)은 12연승-21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  
 토트넘이 2연패 부진을 끊을 수 있는 다음 정규리그경기는 오는 18일로, 왓퍼드(4승 7무 10패 승점 19)를 상대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32·요넥스)가 1년 2개월 만에 국제대회 정상에 오르며 완벽한 부활을 선언했다.  
 이용대는 김기정(30·삼성전기)과 남자복식 조를 이뤄 출전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말레이시아 마스터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36위 이용대-김기정은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4위 리진후이-류위첸(중국)을 2-0(21-14 21-16)으로 꺾었다.  
 이용대-김기정은 2018년 11월 마카오오픈에서 우승한 뒤 1년 2개월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마카오오픈은 슈퍼 300 대회로, 말레이시아 마스터스의 등급이 더 높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일정을 마치고 2016년 후반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지만, 2018년부터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서고 있다.  
 2019년에는 이용대의 부상 등으로 부진했다. 이용대는 옛 파트너인 유연성(수원시청)과 다시 호흡을 맞춰보기도 했지만, 2019년 후반기에 다시 김기정과 손을 잡았다.  
 말레이시아 마스터스는 BWF 월드투어 슈퍼 500 대회로, 이들이 1년 2개월 전 우승했던 마카오오픈(슈퍼 300)보다 등급이 높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 후 워크를 날렸던 이용대는 이날도 카메라에 손 Kiss를 날리는 여유를 보였다. /연합뉴스